

연접하는 초·중학교의 시설 공유 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Guidelines for Facility Sharing in Adjacen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李正秀* 梁尚鉉**
Lee, Jeong-Soo, Yang, Sang-hyun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verify the possibilities of sharing facilities in adjacen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To achieve these purposes, the educational theories are reviewed and several schools are surveyed. The outcome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

(1)It is possible and effective to share some facilities in the adjacent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To achieve the successful sharing effects, it is necessary for the schools concerned to collaborate heartfully in managing school facilities and in operating school curriculum. (2)This study recommends some school facilities such as the dinning room and kitchen, multi-purpose auditorium, administrative part and nursing room. (3)It is more effective that the sharing facilities be located in the adjacent zone and two playground and main entrance be detached from the other territorial zone.

키워드: 시설공유, 초·중학교, 가이드라인

Keywords: facility sharing,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guideline

1. 서 론

학교 시설계획은 교육 목표에 따른 교육과정을 물리적인 환경인 건축공간에 반영하는데 1차적인 목표가 있다. 따라서, 학교시설 및 공간계획의 방향은 교육과정, 학교급, 규모별 운영 및 편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정해지며, 단위공간, 소요 제설의 산정은 교육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관리체계상의 이유로 각각 별도의

시설 확보에 치중하고 있어, 시설 측면에서의 연계성 확보를 통한 효율적 시설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 내에서, 이미 소규모 초·중학교에서는 통합형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전·충남지역에서도 일부의 시설을 공유하는 초·중등학교가 운영되고 있거나 시공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연접하여 입지하고 있는 초·중학교의 시설 운영현황 및 시설공유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초·중등학교 시설 공유의 가능성 및 그 방향을 제안하고자한다.

* 정희원, 충남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 정희원, 순천향대학교 건축학과 조교수, 공학박사

표 3. 조사대상 일반개요

구분	학교명	대지면적	운영체제	학급수	재학생	교직원	비고
통합형	제주신장초 · 중학교	22,177.0㎡	교장 1인 교감 2인	유치원 2학급 신장초 6학급 신장중 3학급 (총 11학급)	유치원 39명 신장초 221명 신장중 97명 (총 357명)	교원 22명 사무원 9명 (총 31명)	
	태안남면초 · 서남중학교	30,392㎡	교장 1인 교감 2인	유치원 1학급 남면초 6학급 서남중 6학급 특수반 1학급 (총 14학급)	유치원 26명 남면초 14명 서남중 170명 (총 310명)	교사 13명 직원 3명 (총 18명)	
	아산선장초 · 중학교	20,359㎡	교장 1인	유치원 2학급 선장초 12학급 선장중 7학급 (총 21학급)	총 630명 (학급당 30명)	교직원 미정	계획안
공유형	대전유평초 · 태평중학교	20,243㎡	교장 2인	유치원 1학급 유평초 24학급 태평중 30학급 (총 55학급)	유평초 : 731명 (19학급) 태평중 : 380명 (10학급)	유평초 25명 태평중 10명	2002학년 신설
	청양청남초 · 중학교	청남초 : 9,941㎡ 청남중 : 10,561㎡	각각의 교장이 독자적인 운영	초등학교 7학급 중학교 3학급	청남초 110명 청남중 119명	청남초 16명 청남중 13명	
	천안백석초 · 중학교	백석초 : 13,611.7㎡ 백석중 : 13,630.7㎡	교장 2인	백석초 42학급 백석중 36학급	재학생 : 미정 교직원 : 미정		공사중
병렬형	서산서림초 · 서산중학교	서림초 : 26,500㎡ 서산중 : 29,700㎡	각각의 교장이 독자적으로 운영	서림초 : 42학급 서산중 : 22학급	서림초:1,630명 서산중 : 831명	서림초 53명 서산중 46명	

2. 연접 초·중학교 유형 분석

초·중학교가 연접 또는 동일 대지에 위치하는 학교의 사례를 검토해 보면, 1) 초·중학교의 교육과 시설물의 운영을 단일한 체제 내에서 실현하고 있는 ‘통합형’, 2) 학교의 운영은 각각 독립적으로 하되 일부 특정 시설을 공유하여 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있는 ‘공유형’, 그리고 3) 도시계획 및 학교 시설 배치상의 이유로 초·중학교가 인접대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시설 및 운영에 있어 아무런 관련성을 갖지 않는 ‘병렬형’ 학교로 나눌 수 있다.

‘통합형’ 학교는 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로 소규모 초·중학교가 분교로 축소되거나 또는

폐교됨에 따라 이를 각 지역실정을 반영하여 하나의 교육 체제 내에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는 유형이다. 대표적으로 태안 남면초·서남중학교, 제주 신장초·중학교가 이 사례에 속한다.

‘공유형’은 초·중학교가 인접하여 존재하거나 또는 신설 초·중학교가 동일 지역에 입지하게 되는 경우에 주로 나타나며, 본 연구에서 시설계획의 방향을 제안하는 유형이다. 이 유형의 초·중학교에서는 교육 체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부족한 토지 및 시설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특정의 시설을 일부 공유하여 사용하게 된다.

그리고 ‘병렬형’은 초·중학교가 인접대지에 입지하고 있으나, 운영체제 및 시설물의 이용에 있어서 특별한 관련성을 갖지 않는 경우이다. 현재 인접되어 있는 다수의 초·중학교는 행·재정적 여건 및 교육체제¹⁾ 운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상호 연계 또는 시설공유의 가능성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현지 교사 및 행정실 직원들과의 면담결과에 의하면,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여건의 차이와 더불어, 행정 및 운영면에서도 시설 공유의 난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초·중학교 시설 공유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초·중학교가 통합되거나 혹은 인접대지에 위치하는 학교들의 사례를 문헌고찰을 통하여 추출하고,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제주 신창초·중학교를 포함하여 이용 현황 및 직원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다.

3.1 통합형 초·중학교

3.1.1 제주 신창초·중학교

초등학교는 각 학급별 일반교과실 형태로 운영 중이며, 중학교는 학년의 교실 개념 없이 교과별 교실이 배정되어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이동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교무실도 초·중등이 하나로 통합되어 교사연구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 파트마다 칸막이를 이용하여 공간을 구획하여 사용하고 있다.

초·중등학생의 교사 및 시설배치는 중앙부의 행정 및 지원체실을 중심으로 좌우 분리되어 있다. 동선에 있어, 중앙부 현관은 공유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초·중학교 등, 하교시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교사동의 주출입구를 따로 분리하고 있다. 컴퓨터실, 도서실, 시청각실(음악실, 체육실 겸용), 특별교실, 강당, 식당 등이 초, 중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 시설이다.

3.1.2 태안 남면초·서남중학교

남면초·서남중학교의 전체적인 시설배치는 중앙 전면부 1층에 관리 공간을 두고, 좌우로 초등 및 중등시설을 배치하고 있어 기능적인 분리를 고려하고 있다. 특별교실은 주로 2층에 두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공동 사용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초·중학교가 공유하고 있는 시설은 도서실, 컴퓨터실, 강당, 식당, 시청각실, 양호실 등이다. 이중 식당은 비교적 학생수가 적고, 수업시간 편성의 차이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동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실의 경우 초·중학교로 구분되어 있으나 현재는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행정실과 회의실, 교사휴게실도 초·중학교가 공유하고 있다.

면담조사 결과,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 사이의 갈등²⁾은 특별히 드러나지 않고 있으나, 중학생들이 구기종목 등의 활동으로 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을 시에는 초등학생의 운동장 사용이 기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1.3 아산 선장 초·중학교

선장 초등학교의 경우 각 학급을 열린 교실로 운영하여 가변형 칸막이를 설치, 필요에 따라 구획되도록 계획하였고, 중학교는 교과교실형에 따라 이동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외부 운동장의 사용에 있어서, 초등학생에게는 소규모의 놀이 공간을 마련하여 야외 학습 및 유희에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계획하였고, 중등학생에게는 구기 등 여러 운동이 가능하도록 중규모의 운동장을 할애하였다. 그리고 초, 중학생들의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혼잡을 최소화하고 있다.

3.1.4 통합형 초·중학교의 특성

통합형에 속하는 초·중학교는 농어촌 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수 감소, 기본적인 학교 시설과 설비부족 등의 상황에 직면한 농어촌의 소규모 초·중학교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통합운영학교는 시설 및 인적자원 공동 활용의 극대화, 탄력적인 교과과정운영, 예산절감의 효과, 일체감 있는 초·중학교운영, 조직관리의 효율성 증대, 단일업무체제 구축, 지역사회 교육시설로서의 기능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통합형 학교들에서 주로 공유하고 있는 시설은 컴퓨터실, 시청각실 등의 특별 교실과 도서실, 강당, 식당 등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에도 행정 관련실, 교사 연구실 등이 공유되고 있었다. 외부 공간의 이용에 있어서는 적정 규모의 운동장을 두어 중학교의 체육활동과 일부 초등학교의 체육교과 수업에 활용되게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유희 및 야외 수업을 위하여 별도의 소규모 외부공간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초·중학교에 필요한 기능들 중 공동의 사용이 가능한 시설들은 최대한 공유하여 시설의 이용률과 설비의 수준을 높이고, 복수로 구비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능들을 상호 보완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상당 수의 교사들이, 시설공유에 따른 초, 중학생 간의 갈등으로 인한 생활지도 문제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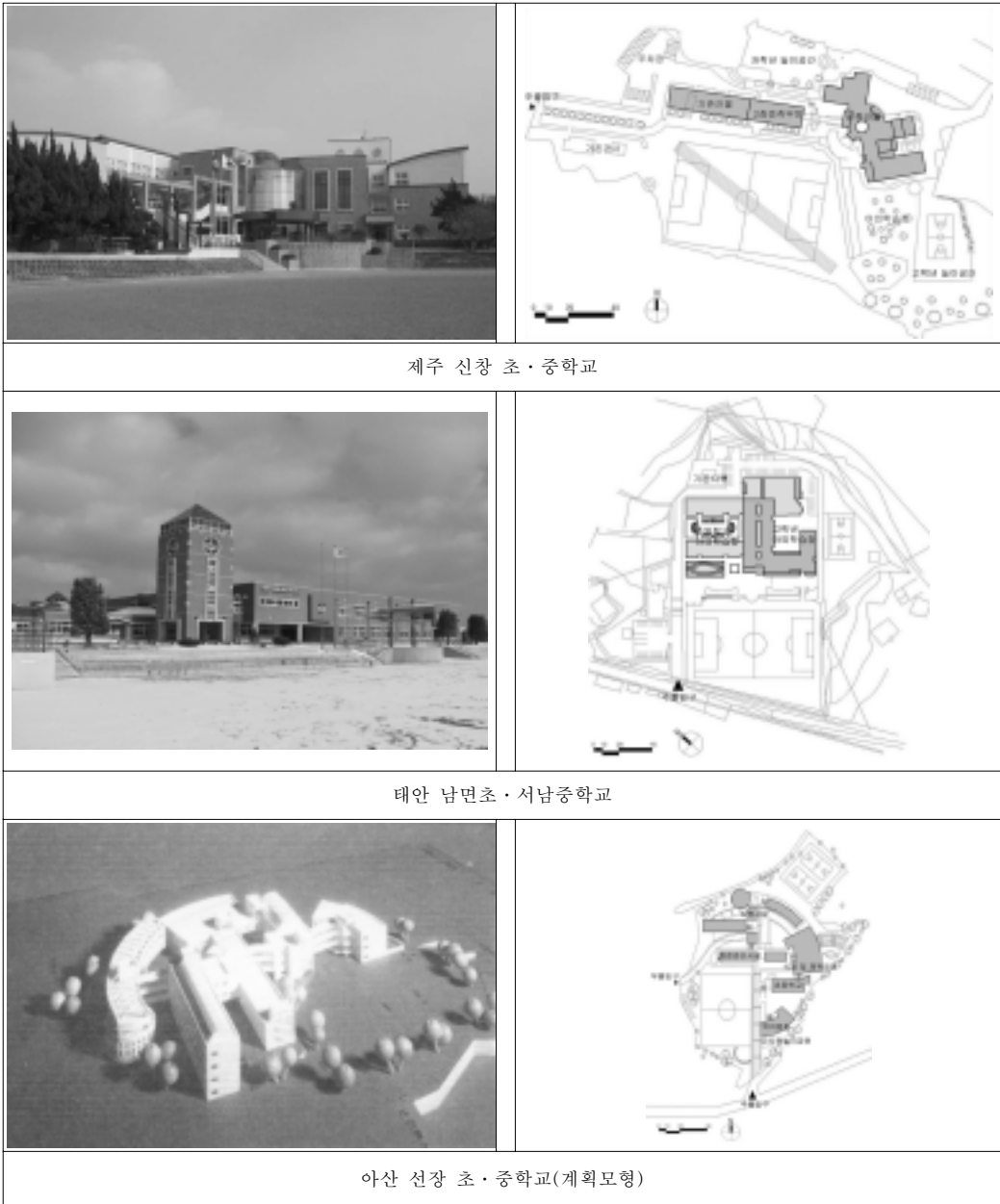


그림 1. 통합형 학교 전경 및 배치

3.2 공유형 초·중학교

3.2.1 대전 유평초·태평중학교

예산 절감과 대지의 부족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건립의 초기에서부터 연계된 시설

로 계획됨으로써, 시설의 공유 및 각 시설의 보완적 사용이 현상설계 지침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된 경우이다.

시설배치는 대운동장을 중심으로 ㄱ자형을 지니는데, 대운동장 서측으로 중학교를, 북측으로 초



그림 2. 공유형 학교 전경 및 배치

등학교를 배치하고 그 가운데 절곡부에 급식 및 강당 등 공유시설이 있다. 초·중학교가 함께 공유하는 시설은 운동장(대운동장)³⁾, 강당(체육관), 조리실 및 전기·수도시설⁴⁾, 지하주차장 등이다. 강당(체육관) 건물의 지하층은 식당으로 사용되며, 1층의 강당 및 체육관은 운동장과 더불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체육 교과 학습 및 운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초등학교 동의 상부에는 다목적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일부의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3) 초등학교 후면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소규모 운동장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 4) 사설 급식시설 중 조리실을 공유하면, 영양사 및 조리인원의 절감과 더불어, 가스 및 전기관련 시설의 2중적인 투자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입구(교문)를 분리하지 않고 있으나 시설의 운영에 따라 각 학교의 전용 출입구를 두는 것도 가능하도록 계획되었다.

3.2.2 청양 청남초·중학교

청남초·중학교는 투시형의 펜스를 경계로 인접하고 있으며, 각각 운동장과 주출입구, 그리고 행정실을 별도로 지니고 있다. 즉, 그 동안 병렬형의 학교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두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시설을 신축 중에 있다. 공유 시설로 신축 중인 건물의 1층은 식당, 2층은 다목적실로 계획되어 있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실동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관리상의 이유로 일부시설의 공유 이후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하고 있는 펜스는 계속

존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초, 중학교 학생들간의 특별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외부 공간에서도 유기적인 시설 공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학교의 사례로 보아 초·중학교가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경우 현재까지 별다른 시설 공유가 없는 병렬형에서 일부 필요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유형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

3.2.3 공유형 초·중학교의 특성

공유형 초·중학교는, 초·중학교가 동일 지역에 인접하고 있을 경우, 토지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된다. 또한 기존의 병렬형 초·중학교가 미흡한 시설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공유형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학교에서는 전반적인 교육체제는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지만, 개별적으로 구비하기에는 부담이 과중하거나 이용률이 낮은 시설을 공유함으로써 시설 예산의 절감과 운영 및 관리의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주요 공유시설로는 강당(체육관 혹은 다목적실), 조리실 및 식당, 운동장 등이 있다. 강당은 보통 우천 시의 체육활동이나 학예회, 학생들의 방과 후 운동, 특별활동 등에 이용되므로 하루 중의 이용 시간은 많지 않으나, 신축 시의 건축비용은 막대하므로 시설 공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다.

급식 및 조리실을 통합하는 경우 제반 급식, 조리 설비와 소요 면적을 대폭 절감할 수 있으며, 조리 인력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운동장 역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특성에 맞게 대운동장과 소운동장(놀이마당)으로 구별하여 서로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유형 학교는 공유시설의 종류에 따라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이에 대한 각 학교 운영주체간의 긴밀한 협조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3.3 병렬형 초·중학교

3.3.1 서립초·서산중학교

서립초등학교와 서산초등학교는 담장을 경계로 인접된 대지에 위치한다. 1946년도에 설립된 서산

중학교의 대지를 할애하여 서립초등학교를 설립하였다. 두 학교의 경계에는 그물형 펜스를 세워 분할하고 있다.

서립초등학교와 서산중학교의 건물 사이의 경계 일부에는 시에서 건립한 서산학생체육관⁵⁾이 자리잡고 있는데 이 시설은 주로 서산중학교에서 사용하고, 초등학교의 일상적 사용은 배제되어, 학예회 등 특별한 행사에 한하여 년 1, 2회 사용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 외의 시설운영과 교육 체계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3.3.2 병렬형 유형특징

병렬형 초·중학교는 도시계획 및 학교 배치상의 이유로 인접 대지에 건립되었으나 교육 및 시설운영에 있어 특별한 관련을 갖지 못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병렬형의 학교에서도 인접한 타 학교와 일부 시설의 공유에 대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관리 및 운영의 문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하여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초·중학교 시설 공유계획 방향

이상의 사례를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초·중학교가 공유하고 있는 시설은 특별교실, 도서실, 강당, 식당 및 조리실, 운동장, 행정관련실 등이다. 이들 공유 시설들은 실의 이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시설의 소요 부지 및 건립 비용이 막대하여 재정적 부담이 큰 경우, 혹은 관리 운영상의 이유로 통합, 공유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설인 것으로 파악된다.

시설공유의 효과가 가장 높은 시설은, 식당 및 조리실, 강당 등이다. 이들은 차지하는 부지면적과 건립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뿐 아니라, 시설의 사용에 있어서도 하루 중의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거나 혹은 이용율이 낮아 중복 투자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과도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이들 시설의 건축적 구비 요건 역시 초·중등학생의 차이에 따라 특별한 구분을 두지 않으므로 공동사용에 문제가 없다.

5) 행정실 관계자에 의하면, 운영 및 관리는 서산중학교에서, 수도인입 및 비용은 서산초등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서산 서림초·서산중학교(펜스에 의해 분리)

그림 3. 병렬형 학교 전경 및 배치

식당은 초·중학교의 수업시간 편제에 따른 중식 시간의 차이(30~40분)를 활용하면 일부 좌석의 중복 운영도 가능하므로 탄력적으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식당에 따른 조리실을 통합하는 경우 운영상의 효율성은 물론 인력 및 관리비용의 절감도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초·중학생의 성장 정도에 맞춘 식단의 차이에 따라 조리라인이 2원화 될 가능성 등에 관하여는 실질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강당(체육관)은 실내의 체육활동이나 학예발표, 입학, 졸업식 등의 학교 행사에 사용된다. 그 특성 상 시설의 사용이 제한적이고 초기 투자비가 상당하여 시설 공유시의 효과가 매우 크다. 두 개의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만큼 규모와 설비의 적절한 수준을 확보하여, 시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실이나 전산 정보실은 학교 규모에 따라 각각의 학교에 별도 설치 또는 공유 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이러한 시설들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게 되며 그 사용빈도 역시 높으므로 학생들의 출입이 자유롭고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분리되어 설치되는 것이 좋다. 도서실을 각각 분리할 경우 별도로 구비된 자료의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으나 초·중학생의 도서이용 특성상 특정의 책자가 집중적으로 대출되고 있어 다량의 구비가 불가피하다. 또한 각 도서실에 따로 구비된 자료의 경우라도 비치자료의 정보네트워크 검색을 통하여 교차 대

출이 가능하도록 운영한다면 상호 보완적으로 가능할 것이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초·중학교라면 별도의 설치가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기술 및 가사(조리실습) 등의 특정 교과목 실의 경우 중학교에서는 필수적으로 구비해야하지만, 초등학교의 교과과정에서는 이들 실에 대한 연간 이용이 학급당 수회에 그치므로 중학교에 설치된 실을 초등학교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이들 실에 대한 초등학교 측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음악, 미술 등의 예능계 실들은 초·중학교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 실수를 각 학교에 모두 설치하는 것보다는, 초·중학교에서 공용으로 사용되는 시청각실 및 다목적실을 마련하여 특별교실의 부족에 대응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행정관련실은 초·중학교가 독립된 운영체계를 갖게 되므로 각각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상·하수도, 전기, 냉·난방 등의 설비용 제반 실들은 가능한 한 통합하여 설치함으로써 비용과 공간의 절감을 유도할 수 있다. 양호실의 경우는 한 실로 통합하여 적정한 구급, 의료시설을 구비한다면 시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양호 교사 인력의 수급도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운동장이다. 사례조사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초·중학교가 각각의 운동장을 구비할 필요는 제기되고 있으나 그 사용이 배타적이지

표 2. 각 학교의 공유시설 현황 및 이용실태

학교 공유시설	통합형			공유형		병렬형
	제주 신창초·중학교	태안 남면초· 서남중학교	아산 선장초·중학교	대전 유평초· 태평중학교	청양 청남초·중학교	서산 서림초·서산중 학교
특별교실	○	○	●			
도서실	●	○	●			
강당(체육관)	●	●	●	●	●	▲
식당 및 조리실	●	●	○	●	●	
운동장	●	●	○	●		
행정 및 관리실	○	○	○			
컴퓨터실	●	●	●			
시청각실	○	●	●			
양호실		○				
주출입구	○	○	○	○		
현 관		○				
주차장 및 설비시설	○	○		○		

- 초, 중학교의 공유시설
- 초, 중학교는 물론 주민들도 사용 가능한 공유시설
- ▲ 초, 중학교에서는 공유시설 사용이 빈번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은 사용가능한 시설

않도록 계획하여 시설의 보완적 공유가 가능하도록 한다. 부지가 제한적일 경우, 중학생의 체육 및 구기 활동에 적합한 적정 규모의 운동장을 중학교 측에 구비하고, 필요시에 초등학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좋다. 초등학교에서는 작은 규모의 야외 공간으로도 야외 수업 및 놀이가 가능하므로 중, 소규모의 놀이 공간, 모래밭 등을 학년에 맞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의 구기활동 및 운동회 등의 행사는 중학교의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상의 협조가 이루어진다면 외부공간은 각 급 학생들의 수준에 맞춘 다양한 구성이 가능해 질 것이다.

학생들의 등, 하교는 전용의 출입구를 두지 않고, 인접한 도로에서 자유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추후 관리 및 운영상의 이유로 초·중학교의 등하교 동선 분리 요구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접근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문을 구분하여 전용할 수 있다. 교사 및 방문객용 주차장의 경우도 필요에 따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5. 결 론

7차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초·중학교 시설 공유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시설공유의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시설 공유가 바람직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공유 시설의 기능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 동선, 적정한 설비 수준 및 규모의 설정 등의 합리적인 건축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시설의 종류로는, 식당 및 조리실, 설비제실, 강당(다목적실), 양호실, 행정관리실 그리고 운동장 등이 우선적으로 공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청각실, 컴퓨터실, 특별교실 등은 학급 수 및 운영 방침에 따라 탄력적으로 시설의 공유를 검토할 수 있다.

둘째, 시설 공유에 있어 각 운영 주체간의 긴밀한 협조와 이해가 필수적이다. 초, 중등 양 교육기관이, 시설 공유시 우려되는 이용 혼잡과 관리상의 난점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는 구비하기 어려운 양질의 시설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인식하여 시설 공유의 효과를 최대한화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육 조건의 차이가 현저하므로, 공유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하여 공유 시설의 종류, 공유 정도, 시설 배치에 있어서의 분리와 연계가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시설 이용의 편의성 뿐 아니라 유지 관리 측면에 있어서 공유 시설의 소속, 그 운영 책임과 한계의 설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따라서 시설의 공유와 외부 공간의 배치계획은, 각 학교의 독립적 교육 체계의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기적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박동소·이정수·양상현·김영수, 천안 백석초·중학교 기본계획 연구. 충청남도천안교육청, 한국교육시설학회. 2002. 2
2. 김승근·최효승, 초·중등학교 통합운영에 따른 교육시설 이용효능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15권 4호(통권126호), 1999.4
3. 남면초등학교·서남중학교, 남면지역 농어촌 현대화 시범학교(자료현황), 2001
4. 정진주 외, 지역별 통합운영학교 이용효능 및 의식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3권 3호 통권9호, 2001.10.
5.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시감, 대전 유평초등학교·태평중학교 설계개요 및 공사현황, 2000.11